지역경제위기 극복 행정력 집중

강임준 군산시장, 올 현안 추진상황 ㆍ 계획 간담회

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 가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 처 방문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다.

이런 가운데 17일 강임준 군산시장 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주요현안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우선 지난 3월 GM군산공장 부지 매각에 따른 협약 이후 군산 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강 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.

시는 현재 매각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로 사업이 정상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 원 방안에 대해 산자부, 전라북도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.

특히 강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자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신재생에너 지 사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 련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을 선행 유치해 지역경제 체질개선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.

또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기업을 설립해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시민 중심 발전사업 추진 및 에너지 경제모델을 만들어갈 방침이다.

다음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군산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사 당상품권 발행 사업도 추가 발행을 비롯해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상품권 가맹점 대상 인터넷 쇼핑몰도



군산시,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중앙부처 방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

운영할 예정이다.

강임준 군산시장은 "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시민기업을 설립해 시민과 함 께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중심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"며 "시민기업을 통해 시에서 얻은 수익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것" 이라고 말했다. /군산=김정훈 기자

익산시, 전북도 경관디자인 조성 공모 사업 선정

동산동 대간선수로 수변경관 조성 도비 3억원 지원받아

익산시(시장 정헌율)는 전북도가 주 관한 경관디자인 조성 공모에 동산동 '대간선수로 수변경관 조성사업'이 선정돼 도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

이번 공모는 도내 14개시 · 군을 대 상으로 실시됐으며 익산시는 '강 곁 으로 흐르는 금빛'이라는 주제로 동 산동 대간선수로 수변에 야간공간 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응모해 선정

시는 이번 사업에 도비 3억 원을 지 원받아 총 사업비 7억 4천만 원을 투 입할 예정이며 대간선수로 도로변의 오래된 옹벽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 미해 개선하고 교량 및 도로변은 경 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.

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0년까지이며 조성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수변공간의 자연성을 보전하면서 인근 도심생활권과 조화롭고 쾌적한 친수생활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.

김성도 도시재생과장은 "대간선수로 를 따라 조성된 유천생태습지와 동산 동 행정복지센터, 신축예정인 남부권 도서관, 수로변 보행데크에 이어 야간 경관까지 조성되면 도심 속 자연 친 수공간으로 탈바꿈 된다"며 "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될 것이다"고 말 했다.

동산동 대간선수로는 100년 가까이 된 근대유산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유일한 상수원 수로로써 문화적,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, 특히 400m가량의 오래된 아름드리 메타세 쿼이아 가로수가 이곳의 명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. /익산=장인천 기자

농어촌공 수자원관리사 안전관리실태 점검

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본부(권 기봉 이사)는 지난 16일 익산지사, 전 주완주임실지사 관내 대아수계(대아, 경천, 동상저수지)의 대간선수로의 안 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
대아수계의 3개 저수지는 총저수량이 95백만톤이며, 대간선수로는 익산, 전주, 군산지사의 수혜면적 16,242k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, 익산시, 군산시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길이 70km(폭15m, 높이2.0m)에이르는 중요시설이다.

권기봉 이사는 차상철 지사장으로 부터 대간선수로의 안전 및 유지관 리 실태를 보고 받고, 대간선수로는 지자체에 생활, 공업용수를 연중 24 시간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기 반시설임을 강조하고 간선수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 부했다.

/익산=장양원 기자

'익산다문화이주민+ 센터'운영 본격화

익산시(시장 정헌율)는 행정안전부가 다수부처 협업모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이주민+(플러스)센터를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

다문화이주민+(플러스)센터는 법무 부 전주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고용 노동부 익산지청, 익산노동자의 집, 익산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의 업무를 한곳에 모은 통합센터로 그 동안 결혼이민자 와 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이 민원 처리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각 각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 게 됐다.

익산시에서 운영 총괄, 법무부는 체류자격신고,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및 변경 등의 민원서비스, 노동자의집 에서는 임금 체불관련 상담서비스, 건 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·번역서비스와 한국어 및 한국사 회통합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.

정헌율 시장은 "그동안 한국어와 한 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 이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 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문 화이주민+(플러스)센터의 개소로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

외국인의 편의는 물론 한국사회 조 기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다"고 전했다.

/익산=장인천 기자



익산시, 강원도 산불 피해 이웃**돕**기 성금 기탁

정헌율 익산시장이 17일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을 전달했다.

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. 기탁된 성금은 1200여만 원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익산시 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해 기탁하게 됐다.

모금된 성금 전액은 기탁식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피해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. /익산=장인천 기자

강원지역 주민들 추가피해 방지 도움

코레일 전북본부, '강릉월화 기차여행상품' 운영

코레일 전북본부(본부장 권혁 진)는 대형 산불로 인한 강원지 역의 관광객 감소 등 주민들의 추가피해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KTX타고 떠나는 '강릉월화 기차 여행상품'을 운영한다.

'강릉월화 기차여행상품'은 익 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서 환승한 후 강원도 강릉역에 도착하여 강문 해변, 허균·허난 설헌 기념공원,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강릉월화거리를 둘러 본 후 중앙시장에서 저녁 식사 후 돌아오는 당일여행상품 이다.

이번 여행상품은 강원지역의 경 제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한시 적 KTX 30% 할인에 추가적으로 상품할인(승차율에 따라 상이)까 지 적용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 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.

고범석 영업처장은 "이번 산불 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의 안정을 되찾길 바라며, 관광객 감소 등 경제 침체로 인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강원지역 기차여행상품을 개발하겠다"고 밝혔다.

한편, 코레일에서는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자 원봉사자에게는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(특실 제외)운임을 일 시적으로 감면한다. 고성, 속초, 동해, 강릉, 인제 지역 피해복구, 봉사활동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경우 역 창구에 자원봉사증명서 를 제출하면 특실을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. 자원봉사증명서는 전국 자원봉사 센터, 피해지역 현장센터, 온라인 자원봉사포털 1365 에서 발급 받 을 수 있다.

강릉월화 기차여행상품 이용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익산역 여 행센터(855-7715)로 문의하면 된 다. /익산=장양원 기자

이승복 군산부시장, 공무원 친절도 향상 특별교육

군산시가 17일 근무시간에 앞서 본청 민원실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공 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친절 교육에서는 '시민이 만 족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'을 위해 이승복 부시장이 일일강사로 나 생다!

이 부시장은 ▲민원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표정과 대화법 ▲민원인의 의견경청과 수용을 통한 올바른 소통방법 ▲민원응대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.

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평소 민 원인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,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.

이승복 부시장은 "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"고 당부했다. /군산=김정훈 기자

군산시농기센터, 초등생 대상 우리쌀 체험

군산시농업기술센터(소장 김병래) 가 오는 25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140 명을 대상으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'차세대어린이 우리쌀 체험교 육'을 실시한다.

이번 교육은 발산, 문창, 대야 남초 등, 서해초등학교 등 관내 4개교 초 등학생에게 우리 쌀에 대한 올비른 이해와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, 건 강한 식생활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.

김정복 볕뜰농원 대표가 교육 강사 로 나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진행했다.

김 대표는 아이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쌀 볼강정, 쑥버무리떡, 삼색주 먹밥 등 다양한 쌀 요리를 체험하고 시식기회를 제공해 아이들과 교사들 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.

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"우리쌀 체험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맛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,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 영양사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/군산=김정훈기자

구독 · 광고문의 063-288-9700

